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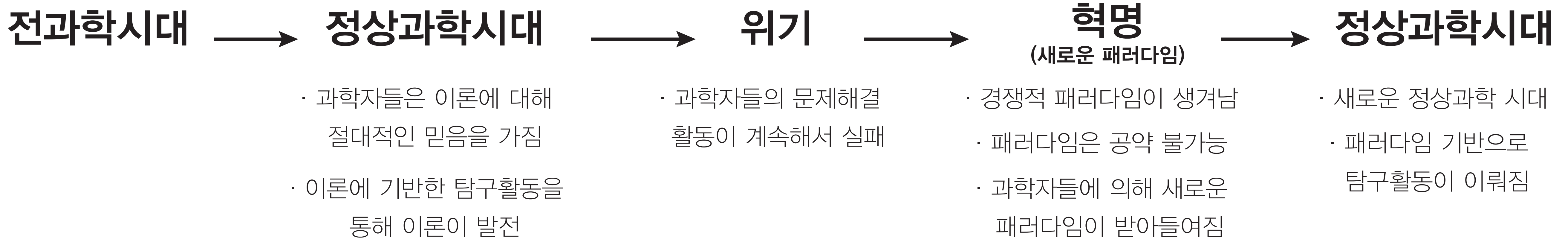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로의 심리학사 변화를 통해 본 패러다임의 한계점

「성격 심리학」, 「과학과 철학」 강의페어링

201221785 심리학과 이다인, 이진희 교수님 지도

PARADIGM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패러다임의 이론과 Bandura의 실험을 통한 패러다임 비판

사례. Bandura의 보보인형 실험(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



TV속에 한 남성이 등장해 보보인형을 구타한다.

남성의 구타 장면 시청 후,
각 그룹마다 취해진 조건 :

- A그룹 - 남성이 **보상** 을 받는 것을 본다.
- B그룹 - 남성이 **처벌** 을 받는 것을 본다.
- C그룹 - **아무 결과도 없는** 것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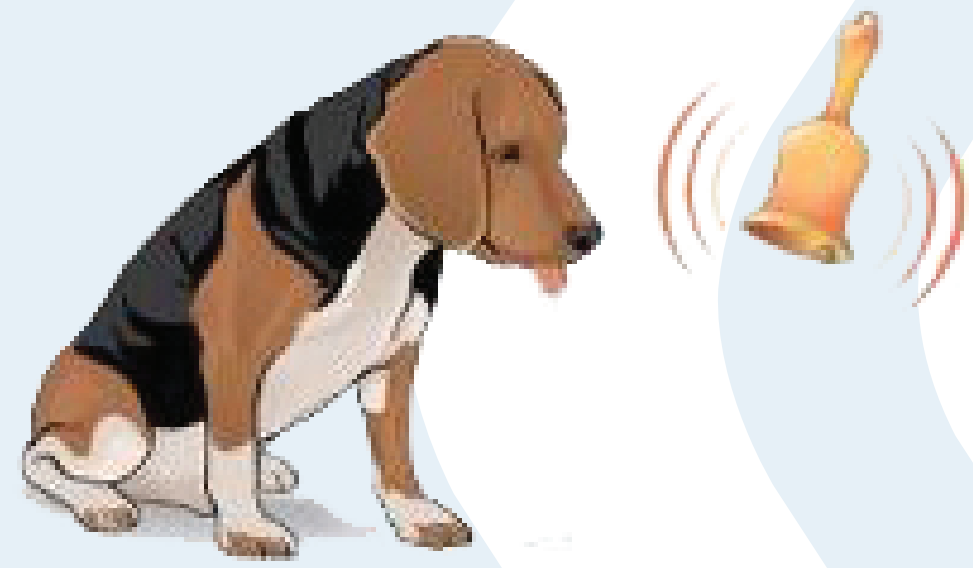
영상을 본 후, 각 그룹 아이들은 보보인형이 있는 방 안에 배치된다.

그 결과,

A그룹 > B그룹 > C그룹 순으로
큰 공격성을 보였다.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메커니즘

행동주의 S R 모델
(Stimulus - Response)



인지주의 S O R 모델
(Stimulus - Organism - Response)



한계점

한계점 1. 패러다임의 모호성

한 실험 결과가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사례 1을 보자. Bandura의 실험은 '보상', '처벌' 을 자극과 연합하여 특정 행동을 자아내는 행동주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에서 아이들은 누가 보상을 주지 않아도 자신이 관찰했던 행동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 Bandura는 이것이 자신에게도 보상, 혹은 처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 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즉, 인지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Bandura의 실험을 놓고, 이를 '행동주의' 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반면, 이를 '인지주의' 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패러다임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특정 패러다임에 이름을 붙이고 패러다임의 간격을 구분 짓는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한계점 2. 과학자들은 일개의 반증사례를 통해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낸다.

동 패러다임 SR모델에서 인간은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생물인 반면, 인지 패러다임 SOR모델에서 인간은 자극이 입력되면 그 해석에 따라 독특하게 반응하는 존재이다. 행동 패러다임에서 Skinner, Pavlov와 같은 유명 학자들의 행동주의 실험 결과들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그렇다고 학자들이 비판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매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개별 사례를 통해 이론의 단점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이들이었다. 그 예로, Bandura는 행동주의 패러다임의 SR모델이 인간을 완벽히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개별적인 '인지 활동' 에 초점을 맞춰 이론을 보완했다. 이는 Bandura가 일찍이 행동주의에서 반증요소를 찾아내고 바로 해결책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과학자들은 오히려 허점을 발견해낼 능력이 있고, 그 허점을 통해 이를 해결해줄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계점 3. 패러다임의 제한성과 모순성

제한성: 합리주의적 설명관이나 쿤의 '패러다임론' 은 그 범주를 따져볼 때, '방법론' 에 속한다. 방법론은 이성적 고찰에 따라 현상을 규명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방법론 또한 과학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나 쿤의 패러다임론은 자신의 이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들이 과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은 뒤로 하고, 제한된 영역에만 이론을 적용시키고 있어 문제가 된다. 모순성: 위의 내용에 따라, 과학 방법론의 변천과정 또한 하나의 과학사를 이룬다. 그러므로 패러다임론의 '정상과학 - 위기 - 혁명' 의 과정은 패러다임론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허나, 쿤의 이론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이론도 언젠가는 다른 이론에 의해 대체될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이미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정리. 과학을 수용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과학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패러다임은 이론의 수용집단이 과학의 변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세시대처럼 특정 종교가 강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세뇌 받은 신념을 가지게 되고, 객관적인 입장을 갖기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가 갈릴레오의 재판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은 편협한 과학자들에 의해 특정 이론이 강요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호' 활동에 지날 뿐,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 활동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은 명백히 진리를 찾아 분투하는 과정이다. 과학사는 단순한 수용-거부의 활동이 아니다.